



Universal 영화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Regal Movies도 합세해, 공식 트위터에 "영화사의 창구를 존중하라(respect the theatrical window)"고 게시했다. 영화사의 창구(theatrical window)는 영화관이 신작 개봉의 독점적인 권리를 지녔던 시절을 뜻한다.

영화관이 그들의 독점적인 창구를 지키고자 애쓰는 것은 이해된다. 결국 그 독점권이 성과 없이도 그들의 산업을 유지시켜 주었던 것이다. 한편, 몇몇 산업 분석가들(industry watchers)은 "Trolls World Tour"의 성공 사례가 영화관을 대체할 VOD를 상징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VOD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것이며, 이번 상황이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영화관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듯 영화관의 정확한 운명은 알 수 없으나, "영화를 보러 가는(movie-going)" 경험이 변화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환경 가운데 소비자의 선호에 적응하는 영화관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사라질 것이다. 섯다운(shut-down)을 극복하고 새로운 소비자 행동 및 법적 제한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그들의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산업은 시간이 지나며 변화한다. 때로는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더 빠른 변화를 강요하기도 한다. 그것이 시장의 아름다움(beauty of markets)이다. 그들은 어떠한 안내자도 필요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번역: 조은지

출처: <https://fee.org/articles/to-survive-covid-19-movie-theaters-will-have-to-change>